

타이어, 부타디엔 폭락으로 “즐거움”

KTB투자증권, 원재료 코스트 떨어져 ... 글로벌 수요 부진도 상쇄

타이어업종의 주가가 원재료인 부타디엔(Butadiene) 가격 폭락으로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KTB투자증권이 5월14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 적극적 매수를 추천했다.

남경문·남정미 연구원은 “과거 타이어업종의 주가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했다”며 “최근 부타디엔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기에 재진입했고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타디엔 가격은 5월 첫째 주에 톤당 2475달러로 최근 2주간 23.3% 하락했다.

아울러 “타이어 원재료 가격 하락은 국제 타이어 수요가 부진한 탓이지만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에게 오히려 수혜”라며 “선진국에서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타이어를 구매하는 <스마트 바이> 현상이 확대돼 국내 타이어 생산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TB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의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원을 제시했다.

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8000원과 2만3000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4>